



3월 2일, 설레이는 초등학교 입학식

안산시 시정소식지 | NO. 437

출
출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發
발



3월 4일, 시민구단 안산그리너스FC 창단 첫 경기 승리



교육공동체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안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산은 평생학습도시다. 지난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공식 선정된 후 11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해 지역 내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평생교육사라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평생학습센터를 개소했으며, 2007년에는 전국 최초로 성인문해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2012년 안산시평생학습관을 개관하며 사업이 더욱 확대됐다. 시민 편의를 위한 '우리동네 길거리학습관'도 도입했고,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또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초적인 이론공부부터 라떼아트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수강생 최수현 씨(여, 건건동)는 "커피 마시러 왔다가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수업이 재밌어서 다음 수업이 생기면 또 듣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우리 동네에 길거리학습관이 어딘지,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안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learning.iansan.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평생학습관(031-409-1877)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접근성 · 편의성

“나는 강의 들으러 동네카페에 간다!”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카페, 학원, 갤러리 등을 길거리학습관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9월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개소의 길거리학습관이 지정됐다. 주민 3명이상만 모여도 원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한 달 동안 주 1회 2시간 정도의 수업에는 소정의 감사비도 지원된다.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누구든 길거리학습관에 수업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강사모집도 도움 받을 수 있으니 배우고자하는 열망만 있다면 강좌를 신설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 상록구 건건동에 위치한 '바리스타 강' 카페에서는 '기초커피교실' 수업이 한창이다. 수강생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카페에 모여 두 시간 동안 커피수업을 듣는다. 커피에 대한

“마을교사들과 교실 밖 세상을 만난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사동에는 조금 특별한 수업이 있다. 동네 주민인 엄마들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토요일 수업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4개로 나뉘진 수업은 연령별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초등 1,2학년은 가까운 동네 숲에서 생태체험 수업을 하고, 초등3,4학년은 지역을 배우며 안산 곳곳을 여행한다. 초등5,6학년은 한국 역사를 배우며 의미 있는 장소로 여행을 가고, 청소년들은 토론수업, 농활, 서울탐방 등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이 수업이 특별한 이유는 동네 '쌤'이자 '이모'로 불리는 엄마들이 직접 교사로 참여해, 더 친근하고 자유롭게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소규모 인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이 이뤄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났다. 한 번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매년 꾸준히 참여하고, 졸업하면 동생들이 다시 들어와 오랜 인연을 맺기도 한다. 이런 토요일 수업의 성과로 사동은 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생태수업 담당으로 아이들에게 '짱돌쌤'으로 불리는 이수진 씨는 "미디어 홍수 속에 사는 아이들이 잠시라도 자연을 궁금해 하고 신기해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장난꾸러기들과 함께 놀다보면 나도 철부지 아이로 돌아간 것 같

아 즐겁다.”고 말한다. 역사탐험대 마을교사 이영임 씨는 “아이들은 역사와 현재 자기 삶이 연결돼 있다는 걸 느낄 때 집중하고 관심을 보인다.”며, “아이들에게 역사를 이야기하듯 쉽게 전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 달에 두 번 운영되는 사동 토요수업은 매 학기마다 주민센터 2층에서 접수받고 있다. 실내수업은 사동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고, 탐방은 4개 수업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장소로 일정이 결정된다.

◇ 문의 : 감골주민회(031-408-7601)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어르신

“노인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



추운 겨울바람도 막지 못하는 뜨거운 배움의 현장을 찾아 나섰다. 단원구노인복지관의 어울림학교는 노인들의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한글 문해 수업부터 고입·대입 검정고시반, 시대를 앞서나가는 컴퓨터반, 인터넷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댄스스포츠, 전통난타, 가락장구 등의 평생교육 강좌가 개설돼 있다.

지난 2월 24일 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친구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열렸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고, 미술 작업 활동을 통해 인지능력과 소근육의 협응력 향상을 도모하는 수업이다. 미술 작품을 만들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속이야기와 위로의 말들이 어우러지며 창작의 즐거움도 얻는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저렇게 어려운 걸 어찌 만드나 생각이 들다가도 또 열심히 따라 해보면 제법 모양이 나오더라구요. 집에만 있으면 적적한데 이렇게 나와 새로운 것도 만들어보고 친구들도 사귄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원구노인복지관 최성우 관장은 “어르신들에게도 교육은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인데, 지금은 빈곤과 고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여가시간을 문화와 교육으로 채운다는 것은 고독과 질병의 예방,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기발견의 기회,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배시민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라며 “노인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경험과 노련미 그리고 지혜가 있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재능을 모아 젊은 시절 놓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다시 삶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평생교육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 문의 : 단원구노인복지관 031-489-5083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장애인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희망을 보아주세요.”



‘나무를 심는 학교(교장 이봉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2012년 평택에서 안산으로 이전, 안산시의 지원과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봉사자들도 안산시민이 대부분이다.

‘나무를 심는 학교’에서는 장애인들의 감수성 향상과 함께 사

회의 주체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글반, 검정고시반, 특성화교육반등 다양한 분야를 모집하여 운영 중인 ‘나무를 심는 학교’는 교육 소외계층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연중 수시로 모집해 배움의 길을 터주고 있다. 또한 연말이면 전시회를 통해 배운 학습을 뽐내기도 하고, 수학여행을 다녀와 추억을 만들기도 한다. 일 년 내내 함께 기뻐하며 손길 나누어주는 이웃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지켜봐주는 힘이아말로 최고의 고마움이다.

이봉연 교장은 “무엇보다 등·하교 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열악한 환경임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선생님들, 봉사자들, 후원자들이야말로 영웅이다. 모두 감사한 마음이다. 당장 눈앞의 결과보다는 내면에 쌓인 교육의 힘을 바탕으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 나이테가 한 줄 생길 때마다 커지고 강건해지는 나무처럼 장애인 가족 모두 나이테의 믿음을 잊지 말기를...

◇ 문의 : 나무를 심는학교(031-410-6762)
김 선 명예기자_itsumo9011@naver.com

다문화

“외국인 환자를 돕다보면 저도 행복해요!”



2015년 5월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을 수료하고 지난해부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의료통역을 맡고 있는 중국인 런팡팡 씨. 그는 “일상적인 한국어가 가능해도 병원에 와서 의사와 간호사가 사용하는 의학 용어를 들으면 외국인 환자들은 머리가 멍해진다고 해요. 그런 외국인 환자를 위해 쉽게 설명도 해주고 환자가 어느 과(科)로 가야 할지부터 모든 절차를 옆에서 하나하나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낯선 땅에서 자기 나라 말을 들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환자들이 고맙다고 말할 때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런팡팡 씨는 중국인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외국 환자의 유치부터 국내거주 외국인 환자의 진료 전반에 걸친 의료통번역 서비스를 맡는다. 중국, 필리핀,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중 언어가 가능한 다문화 여성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평생학습과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이론교육 63시간이 포함됐다.

◇ 문의 : 평생학습과(031-481-345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안산그리너스FC, 창단 첫 경기 극적 승리

용병 나시모프 첫 골 이어 한건용, 종료 1분 남기고 결승골

강호 대전시티즌팀 상대로 역사적 첫 승 기록해 시민들 '눈도장'

3월 4일 안산 그리너스 FC가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역사적인 창단 첫 홈 개막 경기에서 대전시티즌을 상대로 2:1 극적인 승리를 일궈냈다.

KE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1라운드에서 안산은 대전을 상대로 외국인 용병 나시모프와 리울을 최전방 투톱으로 내세우는 4-4-2포메이션을 선보였다.

강호 대전을 상대로 다소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안산은 적극적인 공격 전술로 당초 우려와 달리 대등한 경기 흐름을 보였다.

양 팀의 균형은 전반 41분,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나시모프에 의해 깨졌다.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골절되어 리울에게 이어졌고, 바로 골문으로 연결한 공을 나시모프가 달려 들어 헤딩 골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대전도 후반 시작과 함께 반격에 나섰다. 후반 4분 이호석의 중거리 슈팅이 안산의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경기는 1:1 동점이 되었다. 이후 안산은 다소 역습적인 전술을 활용하며 대전의 뒷 공간을 날카롭게 노렸다.

전·후반 90분이 모두 지나고, 1:1 무승부로 마무리 될 듯 했던 경기는 후반 한건용 선수의 극적인 결승골로 창단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추가 시간 리울은 빠른 스피드로 왼쪽 측면에서 돌파했고, 이후 정확한 크로스가 후반 교체되어 출전한 한건용에게 연결되면

서 깔끔한 마무리 골로 연결됐다.

결승골과 함께 후반이 종료됐고 안산은 창단 후 첫 경기에서 멋진 승리로 장식했다. 경기 후 이홍실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은 “객관적으로 챌린지에서 만만한 상대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마음으로 임했다. 창단 첫 개막전이라 부담이 많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승리를 얻어서 너무 기쁘다. 열심히 응원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승리 소감을 전했다.

구단주도 “사실, 우리 선수들이 헌신적으로 뛰어서 기왕이면 첫 게임에 잘 싸워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오늘 모두가 기대 이상으로 몸이 부서져라 뛰어 시민들과 팬들을 즐겁게 해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안산에 축구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창단 첫 경기 승리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안산그리너스FC의 다음 홈경기는 FC 안양과 19일 일요일 오후 3시, 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안산시 & 자원순환협의회, 에코스타트 협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위해 전기자동차 확대 · 보급



안산시와 자원순환협의회는 2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전기자동차 확대 · 보급을 위한 에코 스타트(Eco Start) 협약을 체결했다. 에코 스타트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환경개선을 시작하자'는 의미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산시와 자원순환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 서명과 함께 안산 스마트허브 내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 확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협의회 사업장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시는 사업장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항과 '안산시와 자원순환협의회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상호 홍보에 협력한다.'는 사항이 포함됐다.

안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 총 56대를 보급하고, 개인용 충전시설 및 관공서 주차장 등 주요 차량통행 지점에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이번 에코 스타트 협약체결을 통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의 선구자로서 청정도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환경생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481-2894)로 문의하면 된다.

상록구, 어린이 등 · 하원길 '초록정류장' 설치

어린이집 차량 주 · 정차 구역 확보... 안전 승 · 하차 보장

안산시 상록구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 하원 시 어린이 승 · 하차구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을 위협받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에 대해 어린이 전용 정류장인 '초록정류장' 설치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초록정류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앞 도로에 등 · 하원 시간대 어린이집 차량 전용 주 · 정차구역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승 · 하차 할 수 있는 구역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노면 표시, 안내표지판 및 방호 울타리가 설치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중 18개소를 선정해 '초록정류장'을 시범 설치한 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 보완할 예정이며,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전체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서 주관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5월 중 설치 사업이 완료되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초록정류장 설치 사업이 어린이의 안전을 지



키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산시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 ·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 경기테크노파크

기업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안산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온라인 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시제품 제작, 국내 · 외 홍보 마케팅 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중소 제조기업이며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지원 규모는 맞춤형 국내 · 외 온라인 마케팅 60개사(최대 300만 원), 해외규격 인증획득 10개사(최대 350만 원), 시제품 제작 10개사(최대 500만 원)이며, 국내 · 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 교육은 120명 대상으로 무료 실시한다.

최종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들이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판로를 개척하고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98년 전 수암동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3.1절 기념식... 안산초에서 재현된 만세함성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무렵, 안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지난 3월 1일, 안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은 당시 안산의 열기를 상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1919년 3월 29일, 안산 곳곳에서도 태극기 물결과 만세 함성이 퍼졌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시위는 3월 30일 오전 10시 약 2천여 명이 참가한 수암 비석거리 만세 시위다. 그 당시 수암면 전체 인구가 약 8천 명이었는데 주민 2천여 명이 참가했다는 것은 노인과 아동을 제외한 수암면 주민 대부분이 참가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록이다.

지난해에 이어 안산 3.1운동 발상지였던 수암동에서 개최한 이번 기념식은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문 낭독, 모범 광복회원 표창, 기념사, 삼일절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산시 관계자는 “일제의 무단통치에 맞서 교육과 문화의 힘으로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선열들의 숭고한 숨결이 안산시 곳곳에 스며 있다.”며 “안산시를 사람의 가치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며, 시민 누구나 당당한 주인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념공연으로는 안산시립합창단과 지구촌어린이합창단

의 공연이 이어졌고, 극단 ‘이유’는 3.1만세운동을 주도한 홍순철, 유익수 선생의 이야기를 연극과 플래시몹으로 선보였다. 윤시화 학생(석호초5)은 “오늘 연극을 보면서 일제 강점기 때 목숨 걸고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삼일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기념식 후에는 3.1만세길 걷기 행사가 이어져, 안산초등학교부터 안산 3.1만세운동 기념비까지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걸었다. 이날 안내를 맡은 신대광 교사(원일중, 역사담당)는 “역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찾는 것”이라며 “당시 하루하루 힘겹게 살면서도 이곳 만세시위에 나왔던 분들 마음속에는 조국의 광복을 찾겠다는 소망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만세함성의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기억해서 십년, 백년이 지나도 이 역사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98년 전 비석거리로 뛰어나와 만세를 외쳤던 평범한 사람들. 이름도 남아있지 않은 그들의 용기 덕분에 지금 우리의 삶이 지탱되고 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안산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체계적 준비... 세계적 해양생태관광도시 발돋움



안산시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 잠재력이 큰 도시를 매년 선정해 관광콘텐츠 개발과 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등에 3년 동안 최대 국비 2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도시를 매력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관광을 구현하고 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안산시는 그동안 '올해의 관광도시'를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전 준비활동을 수행해 왔다. 중장기 관광발전 계획 수립, 안산시 관광협의회와 의료관광협의회, 생태관광 주민협의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 구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4급 체제 전문 관광조직 신설, 대송습지 생태로드 프로젝트, 2017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한 관광 국제회의 유치 등 다양한 관광정책 추진 노력이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판단이다.

기존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는 안산시는 서해안 갯벌, 염전, 유리공예, 종이공예, 도예, 승마, 요트, 생태 트레킹 등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인 생태관광자원으로는 걷기 좋은 길 '대부해솔길', 150여 종 20만 마리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대송습지,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와 대부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봉도 낙조전망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안산갈대습지' 등이 있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920)

소식通

공공근로 390명 채용 예정 3월15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접수

2017년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발표됐다. 총 인원 390명 규모로 5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며, 오는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인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근로조건은 주 5일, 25시간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시급은 6,470원이고 1일 교통·간식비 3천 원과 주휴·연차수당은 별도다. 정보화사업, 환경조성사업 및 기타 시책사업에 투입된다.

안산시는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며, 청년층(만29세 이하) 일자리사업과 시책사업 예산절감, 생산성 향상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 문의 : 안산시일자리정책과(031-481-3279)

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약 4억 규모... 150명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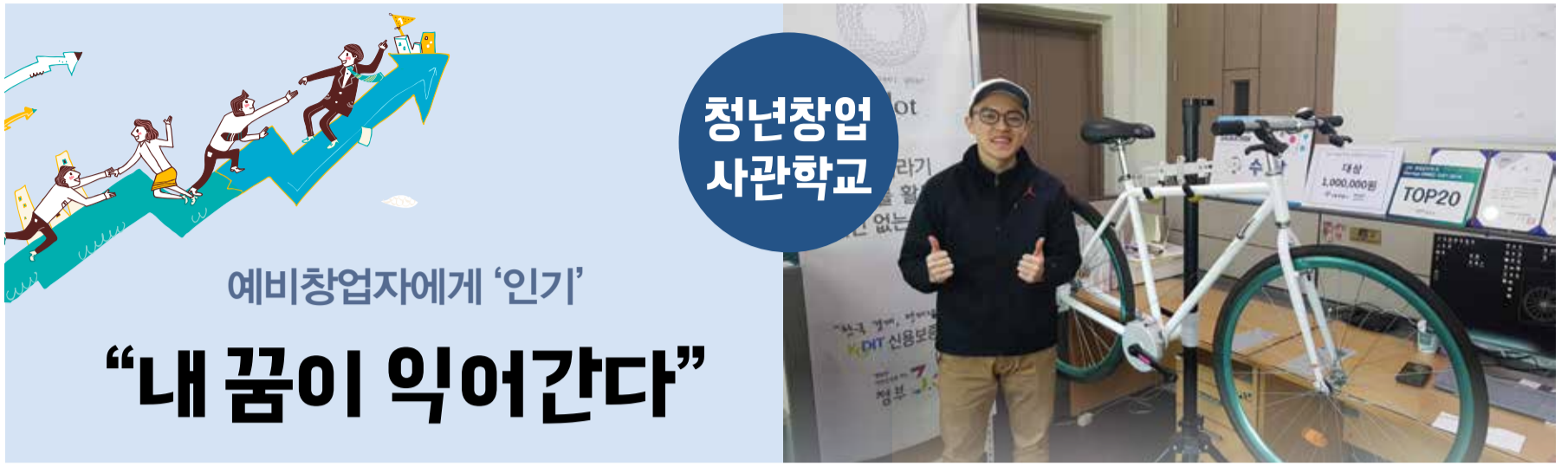
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산꿈키움장학생 64명을 선발, 400만 원 한도에서 한 학기 등록금을 지원하며,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46명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의 50%를 지원한다. 문화·예술·체육에 재능이 있는 초·중·고 학생 30명에게도 각 100만 원씩 지급하며, 자격증 취득 및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14세~22세 학교밖청소년 10명에게도 각 100만 원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오는 6월에는 고등학생도 선발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70-4400-8579)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보상한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 대상

안산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 온 시민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는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수거해 온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매주 수요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수막은 나무지대과 끈을 포함해 수거하고,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한다.

◇ 문의 : 안산시 도시디자인과(031-481-2402)



예비창업자에게 '인기' "내 꿈이 익어간다"

청년들의 꿈이 이뤄지도록 창업과정을 지원해주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에 대한 예비창업자들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사관학교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창업전문 지원기관으로, 기술기반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안산에서 개교했다.

사관학교는 창업아이템에 대한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콘셉트(concept)부터 시장분석까지, 사업화의 모든 과정을 교육·코칭하며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과정부터 이뤄지는 노무, 세무, 특허와 관련된 사업화 교육과 더불어 13개 분과 전담 교수와의 개별 코칭,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 창업 준비 공간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사관학교는 안산을 본원으로 광주, 대구, 경산, 부산, 창원, 천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17년 2월 기준 약 1,555명이 졸업하여 4,99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2,681건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했으며, 총 7,2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코칭팀 여재호 팀장은 "1년 동안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실질적인 코칭을 진행한다. 졸업 전에 제품이 전시되는데 외부에서 수상을 받는 등 우수한 제품이 탄생하면 정말 대견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청년사관학교 6기 졸업생 조광희(체인 없는 자전거 잇닷, 32세) 대표는 "자전거에 체인이 없으면 녹이 슬거나 기름 묻을 걱정이 없다. 하지만 기존의 체인 없는 자전거의 기술은 기어 변속이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부품수가 적고 가벼우며 경쟁력 있는 단가로 심플한 디자인까지 가능한 기어변속기를 만들고 싶었다. 일 대 일로 교수님께 코칭받으며 공학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고, 점점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사관학교가 제 꿈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고 평가했다.

◇ 문의 : 청년사관학교 창업코칭팀(031-490-1381)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④ 다이아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과정을 즐겨요!

환상적인 디지털 가상공간을 창조한다



한양캠프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다이아스'의 김정호 기획자(32세)를 만났다. 그의 고향은 부산이다. 동아대 정치외교학과에 다니던 중 "게임이 좋아서, 게임을 제작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을 그만뒀다. 4년 전이다. 이후 안산 한양대에서 학업 중이던 박현우 씨와 함께 창업동아리에 들어갔다. 두 청년은 학원에 다니며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곧바로 게임을 제작했다. 그러나 그 게임은 실패의 쓰라림을 안겨줬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껴야 했다. 다시 실무 업무를 배우기 위해 회사에 입사했다. 학원에서 게임을 만드는 방법만 배웠다면, 회사에서는 프로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 게임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래밍 시 효율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 그래픽 리소스 관리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회사에서의 2년여 경험이 사업으로 이어졌다. 정호 씨는 게임 기획을 맡고, 현우 씨는 프로그래밍을, 한양대 영상디자인과 전공자 2명이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하며 '다이아스'가 꾸려졌다. 게임 기획자는 게임의 시나리오를 직접 짜며, 아이디어를 통한 게임 이벤트 연출까지 도맡아 작업한다. 게임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와 기획 실무를 담당해 게임이 나올 수 있게 준비단계를 수행한다.

게임을 제작하려면 팀원들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 초기에는 사무실이 없어 카페나 팀원들 집에서 작업했다. 그러나 그래픽 디자이너가 캐릭터 작업을 할 때도 색이나 크기에 대한 의견교환을 해야 하고, 프로그래머와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에러(error)가 생기지 않도록 다함께 작업해야 하다 보니 작업 공간이 간절했다. 그 무렵 청년큐브에 입주하는 행운을 얻었다. 같은 분야의 팀과 작업 개발 과정을 공유하기도 하고 잘 안 풀리는 점에 대해 문의하면서 서로 도움을 얻는다. 또



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게임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적어도 5~6개월이 소요된다. '다이아스'는 큐브 입주 후 3개의 게임을 출시했다. 10~20대 여성이 즐기는 피파푸(PiPaPu), 전 연령층 대상의 큐브 드래그(CUBE DRAG), 머지드 플랜츠(Murged Plants)를 개발했다. 다이아스의 게임은 조작이 쉽고, 천천히 생각하며 머리를 쓰는 게임으로, 잠시 휴식하며 즐기기 좋다.

자금력이 부족해 게임의 독창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인디게임이지만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다양한 캐릭터와 진행방식이 흥미로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이아스. 페이스북 '다이아스'를 검색하면 개발·출시 정보를 알 수 있다. '좋아요!'를 누르며 이들의 꿈을 응원해주길...

◇ 문의 : 다이아스 www.facebook.com/dias corp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부심 (安山負心)

안산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일컫는 말

교육편

사람이 살기에 편안하고 좋은 곳이라는 의미의 안산(安山), 고려 태조 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천년고도입니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반월·시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화의 선도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다시 30년을 준비하며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산다 안 산다 하면서 사는 안산’이라는 자조적 표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들의 땀방울과 열정으로 만들어 낸 안산이라는 도시의 자부심을 되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교통, 자연, 교육, 산업, 문화 등 크게 다섯 분야로 나눠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 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소개합니다.



‘행복교육 숲의 도시’... “꿈과 끼를 키우는 혁신교육” 지역사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장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입시 위주 보다는 전인교육, 인성교육, 참교육 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좋은 성적’과 ‘상위권 대학’이라는 현실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주요 지표다. 부모들의 기대와 학생들의 희망사항은 일치하기 쉽지 않고,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정부나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각기 다르다. 이런 한계 속에서 안산시는 ‘행복교육 숲의 도시’라는 교육 브랜드를 내세우며, 혁신교육을 통한 미래를 구상하고 있다. 또한, 11년차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도 더욱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특색에 따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교육

안산시는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협약한 것으로, 안산시 지역 내 107개 초·중·고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행복교육 숲의 도시’라는 교육 브랜드를 설정하고, 함께 만드는 지역특색교육 도시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 등 3개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행복교육협력센터라는 구심협력 기관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 주는 교육을 추진한다.

사교육비 경감, 청소년 진로 개척 지원

또한 안산시는 청소년 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한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능력 향상을 목표로 자유학기제를 시행 중이다. 중등과정 중 한 학기를 기존의 수업형식에서 벗어난 토론, 실험, 프로젝트 등 유연한 교육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약 3만6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종합예술제, 토론대회, 어울림마당 등

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계발 및 정서함양을 다지는 등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안산시 직업체험센터 내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학생 개인의 직업관은 물론 삶의 목표를 수립하는 기회를 제공해 올바른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역할을 발휘했다.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공부방 지원 활성화에 이어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개선으로 안산시 청소년 문화 개진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시민학습 지원

안산시는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 내 ‘1동 1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선부, 와동, 대부 도서관 3개소를 새로 조성했고, 시민 1인당 1.52권이었던 도서관 장서를 1.7권으로 확충하는 등 ‘책의 도시 안산’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도서를 지원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독서니움 네트워크를 구축, 안산시민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 및 독서의 생활화를 선도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건강한 시민 양성

2015년 안산인재육성재단이 출범했다.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인재 및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굴하고자 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충효교실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재단 운영 3년째에 접어드는 2017년에는 장학사업과 청소년 사업을 개선, 확대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장학사업의 다양성을 꾀하여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시 문화공연과 함께 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장학생들에게 문화공연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단원구 초지동에 복합체육시설 들어선다

골프장 120타석에 수영장 5레인... 풋살, 테니스까지



강욱순 프로골퍼 출자, 15년 후 기부채납 '민간투자방식'



단원구 초지동(673-1번지)에 복합체육시설이 들어선다. 77,249㎡(23,000평) 면적에 골프연습장 120타석, P&P코스(Par3 9홀), 수영장(25m×5레인) 등 수익시설과 함께 풋살장(1면), 족구장(2면), 배드민턴장(2면), 테니스장(2면), 어린이용 한궁(韓弓) 등 비수익시설도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을 민간투자자로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사례로, 15년 후에는 안산시로 기부채납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자는 안산스포츠파크(주)이며 출자 지분의 90%가 강욱순스포츠(주)에 있다.

1989년 KPGA 입회 후 일간스포츠오픈 우승(95년)부터 SBS토마토저축은행오픈 우승(2009년)까지 뛰어난 실력을 갖춘 강욱순 대표(사진)는 “20년 전부터 미국 전역을 돌며 골프 아카데미에 대해 자료를 분석했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마친 지도 이미 10년이 넘었다.”며 “최고의 시설과 최적의 접근성, 무엇보다 오랜 선수생활과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시민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역 내 특화하고인 경일관광경영고 출신 학생들을 40명 정도 채용했으며, 이후 관광산업과 접목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결국엔 안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안산스포츠파크는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하고 있다. 공공생활체육시설로서 최소의 운영비 정도만 받는 수준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퇴근 전·후의 시간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다양한 가격 정책 등을 통해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마이스산업과 관계자는 “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시민에게 훌륭한 체육시설을 보급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의 복지문화시설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다. 공사 중인 현장을 방문했던 시민 K씨(47세, 여)는 “사회초를 바라보며 연습도 할 수 있고, 잘 가꿔진 퍼블릭 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며 “음식점과 커피숍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니 더욱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맵콘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한 시민은 “안산시민으로서 그리고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곧 오픈한다고 하니 자주 들려야겠다. 또 제 아이들도 등록시켜야겠다.”며 반가워했다.

◇ 문의 : 안산시마이스산업과(031-481-3053)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안산 IT·SW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

경기 안산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현장에 널리 활용,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단원구 연수원로 104-14)를 찾았다.

1999년 11월,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출발해 2010년 명칭을 변경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는 지역의 IT·SW 산업을 육성하고 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센터는 △지역SW 성장 지원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경기ITP 안산창업보육센터 운영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SW 성장지원 사업은 마케팅, 인력양성,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초기 IT·SW개발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2015년에는 안산지역 SW융합기업들이 ‘싱가포르 정보통신박람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상담과 120억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은 크게 사출업종 생산라인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과 스마트헬스케어(성장예측 시스템) 개발로 나뉜다.

2014년부터는 중소기업청 산하 ‘안산창업보육센터’를 유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각 기업에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등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반적인 기술 제품화 비용을 지원한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이공계 대졸(초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양교육, 전문전공 교육, 전문연수, 기업현장연수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기업수요형 인재를 양성해 청년실업문제 및 이공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해준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주관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연수생 평균 취업률

은 70%로 연수생 만족도가 매우 높다.

또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 청년 창업이 꽃필 수 있는 큐브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서선영 센터장은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력인프라 양성, 판로개척 등 IT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테크노파크,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IT 클러스터화하고 안산·시흥 스마트허브의 전통 산업과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개발 및 안산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겠다.”며 “안산 IT·SW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031-492-9900)
서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416안전공원 2차 시민토론회

“연간 3천만 명이 넘게 찾는 뉴욕의 명소 센트럴파크 공원이나 9.11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그라운드 제로,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추모공원처럼 416안전공원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추모공간으로 만들 순 없을까”



안산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인 416안전공원 조성에 관한 지역사회 합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인근 지역 주민 경청회와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토),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416안전공원을 위한 2차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안내된 시민과 학생 250여 명이 참여해 세월호 추모시설의 입지와 내용, 규모 등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으며, 한국리서치가 주관하고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갈등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추모공원 건립 예정지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화랑유원지 인근 주민 일부의 반발로 늦어졌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었다.

토론회는 봉안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세월호 추모시설의 가치를 살리면서 지

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편의 시설에 관한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의 추모사업 담당자는 “세월호 추모사업은 세월호피해지역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세월호 추모공원은 이제까지 보아왔던 전통적인 모습의 추모공원이 아니다. 유가족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며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국민 전체가 찾는 시민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과 유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조성될 추모공원도 안산 지역사회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의 :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031-481-3318)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봄이 오는 길목, 안산식물원

매화 · 영춘화 · 버들강아지... “희망의 봄기운 느껴요”

외투 깃을 세우던 찬바람도 우수·경칩 지나 누그러들고 한낮에는 제법 봄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안산식물원에는 활짝 핀 매화가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봄기운을 전한다. 제일 먼저 봄을 맞이한다는 영춘화는 다섯 갈래 노란 꽃잎을 피우고 방문객의 발길을 붙든다. 본오동에서 온 김춘순(72)·정성근(77) 어르신은 “활짝 핀 영춘화가 반갑다.”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른다. 이제 곧 봄기운이 완연해지면 개나리, 진달래도 남쪽에서 올라올 것이다. 식물원의 버들강아지는 벌써부터 솜털 속의 새싹을 틔울 기세다.

안산식물원은 성호기념관, 단원조각광장이 함께 한 성호공원(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3) 안에 위치해 도심 속에서 자연생태계를 보고 느끼고 문화생활까지 접하며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타 도시에서도 관람객이 즐겨 찾는다. 열대·중부·남부지방 식물의 온실 전시관 3개동과 야생화단지, 연못, 광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까지 총 면적 16,363㎡에 이른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열대전시관은 모든 시설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조절되

는 유리온실로, 400여㎡ 공간에 야자나무, 종려나무, 선인장 등 220종 3천 그루가 넘는 열대식물과 물레방아 수족관, 장수풍뎅이, 앵무새 등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매화, 영춘화 외에 176종 1만2천 그루 꽃나무가 자라는 중부전시관도 컴퓨터로 자동 조절되는 유리온실이다. 846㎡ 넓이에 진경산수와 거미줄 바이올, 구절초, 희귀식물 ‘설악산 눈주목’, 향기 식물 천리향까지 있어 은은한 꽃향기를 전한다. 남부전시관 846㎡에는 습지식물 외 178종 1만6천 그루의 식물이 자란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어 학습효과도 크다.

안산식물원은 동절기 오전 10시 ~ 오후 5시, 하절기 오전 10시 ~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관람료는 받지 않으며, 설날과 추석 당일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견학이나 단체방문을 원하면 일주일전에 예약 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식물원(031-481-316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영춘화

홍매화

무늬서향

버들강아지

탐방-안산용신학교

평생학습에서 학력인정까지... '글자꽃'을 피우다



새학기를 맞아 교실마다 시끌벅적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다. 선생님이나 친구들끼리 서로 인사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은 어느 학교의 교실들과 다르지 않다. 성인 문해(文解, 문자해독) 교육기관인 안산용신학교(교장 김경옥)에도 늦깎이 학생들의 학습 열기로 가득했다.

안산용신학교는 1987년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안산중앙실업학교로 등록, 제도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학력보완 교육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해왔다. 2002년부터는 성인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설 용신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하다 2015년 안산용신학교로 개명했다. 2012년 초등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2014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안산 유일의 중학교정 학력인정 학교로도 지정됐다.

지난 2월 15일에는 두 번째 학력인정 중학생을 배출하는 제29회 졸업식이 열렸다. 2016년 등록생 193명 중 35명의 이수자(초등학력1, 2단계 13명, 중학1단계

22명)와 41명의 졸업생(초등 9명, 중학 32명)을 배출했다. 외국인도 286명이 수료했다. 올해 안산용신학교는 초등과정(4개 반) 중학교정(5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검정고시반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반도 운영하고 있다.

초등과정을 졸업하고 올해 중학교정에 도전하는 60대 초 학습자는 “용신학교에서 한글 기초부터 배워 지난 가을에 친정어머니께 편지를 써 읽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제 중학교에 도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에게 고맙다.”라고 말했다.

김경옥 교장은 “과거에 배우지 못한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개인의 잘못도 아니다. 만학의 용기를 내고, 지역사회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교사들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용신학교에서 열정을 키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력인정을 위한 공부가 아니더라도 미처 배우지 못했던 글자를 배우고 싶다면 안산용신학교 문을 두드려보자. “글자를 배우니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많은 학습자들의 후기가 가슴을 울린다.

◇ 문의 : 안산용신학교(031-494-0675)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안산시,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시행

“도서관에 없는 책, 기다리지 말고 서점에서 새 책으로”

동네 서점도 살리고, 도서관에 소장되지 되지 않은 신간 서적을 빨리 읽고 싶은 시민의 기다림도 해결해주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안산시 중앙도서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희망도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는 도서관에 아직 소장되지 않은 책을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새 책으로 바로 대출해 읽은 후 해당 서점으로 반납하는 서비스다. 시민이 대출했다 반납한 책은 안산시중앙도서관이 해당 서점에 책값을 지불하며, 약 한두 달이 지난 후에는 도서관에 비치된다. 지난해 5월 처음 시행한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를 통해 이미 140여 명의 시민이 890여 권의 책을 이용했으며, 올해는 대상 회원을 500여 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희망도서 대출제를 이용하고 있는 최경호(고잔동) 씨는 “바로 대출제도를 통해 4권의 책을 인근 서점에서 빌려 읽었다. 최근 송인서적이 부도가 날 만큼 출판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 희망자는 인터넷 신청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또는 중앙도서관 자료실에 접수하면 된다. 단, 문제집이나 수험서 등은 기존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제도와 같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이용이 가능한 서점은 대동서적(사동, 중앙, 고잔점), 한가람문고(선부동)다.

◇ 문의: 중앙도서관 자료실(031-481-3868)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3월 첫 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지금, 일단 시작!』



모모가 처음 유치원에 간 날

저자 르네 구이슈 / 출판사 아름다운 사람들

유치원은 아이와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 처음으로 생활하는 곳이 유치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때로 초등학교 입학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 벌어지기도 한다. 르네 구이슈는 이러한 부모의 관심과 걱정을 순수하고 솔직한 아이의 시선으로 풀어내면서, 뛰어난 이야기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저자 태원준 / 출판사 북로드컴퍼니

엄마의 환갑잔치를 위해 모아둔 돈을 가만 들여다보면 아들은 차라리 이 돈으로 엄마와 세계여행을 하는 게 낫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더 대단한 엄마는 덱서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독특한 여행은 시작된다. 그들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대륙 끝 싱가포르까지 육로로 이동한 후 ... 그리고 마침내 유럽을 지나 런던에서 300일간의 여행을 마쳤다.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저자 김민태 /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

취업준비생이었던 앤디 워홀은 하룻밤 동안 그린 드로잉으로 삽화가로 데뷔했고, 국내 최고의 광고인인 박웅현은 술값을 벌어들여 요량으로 광고 공모전에 지원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했다. 저자는 좋은 계획이 행동을 이끄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이 좋은 계획을 이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매순간 '한번 하기'를 꾸준히 실천해간다면 독자들과 인생에 수많은 기회와 드라마틱한 변화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청소년 열정공간 99°C

"청소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Interview · 김부일 사무국장

동네마다 경로당이나 놀이터 등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그럼 청소년들은 어디에 모일까. 노래방, PC방, 만화카페... 돈이 없어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상록구 사동에 '청소년열정공간99°C(이하 99°C)'가 생긴다. 올해 사동 감골주민회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모 사업으로 지원, 선정된 것으로, 기존 마을 숲 카페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청소년공간으로 만들었다. '99°C'는 현재 인터넷이 공사가 한창으로 오는 3월 중순쯤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 3년여 동안 사동에서 청소년동아리1318을 운영하며 청소년공간을 함께 만들어온 김부일 사무국장을 만나봤다.



Q 청소년공간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나

원래 동네에서 1318청소년동아리로 활동하는 중 · 고등학생 친구들이 40여명 정도 된다. 사실 이 정도 숫자의 청소년들이 한 동네에 모인다는 게 쉽지 않다. 보통 다른 곳은 '공간은 있지만 아이들이 없어서' 고민인데, 우리 동네는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데 공간이 없어서' 고민이었다. 동아리 아이들이 청소년 거점공간을 만들기 위해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마을기획단 활동을 하며 어른들에게 청소년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네 축제에서 헌옷이나 음료를 팔면서 공간마련 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청소년기획단 활동과 디자인대학도 진행,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상했지만 보증금과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고, 결단이 필요했다. 다행히 마을 숲 카페가 다른 장소로 확장·이전하면서, 이 공간을 청소년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Q 청소년공간이 필요한 이유

우리 세대는 어릴 적 동네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다듬어지는 공동체 경험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고립돼있는 형편이다. 지금 아이들에게도 그

런 성장의 과정을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공동체와 장소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는 노래방이나 PC방처럼 자극적인 소비 공간이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 놀고 수다도 떨며 그 안에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

Q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곳이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류장 같은 공간이 됐으면 한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가끔씩 인문학 강좌나 부영이 캠프, 책모임 활동도 할 계획이다. 일단 올해 목표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려져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오가며 들렀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자기역할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문의 : 010-9028-9252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	-----	-----	-----	-----	-----

03 Culture Calendar

☎ 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

			1	2	3	4
						뮤지컬 <영동발달 공순이 드래곤편> 일시 2017-03-04(토)~05(일)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7	8	9		11
		일동바르게살기 사랑의 돈가스 판매 일시 3.8.(수) 10시~소진시 장소 일동 주민센터				마당극 <안산 제7회 난타콘서트 세상을 두드리다> 일시 2017-03-11(토) 시간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15	16	17	18
				<사1동> 어른신 장수 사진 찍어드리기 행사 일시 2017.3.17(금) 9시~5시 장소 사1동 경로당 (오전: 푸른 마을5단지경로당/오후: 후곡경 로당		
	20	21	22	23	24	25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소장품, 미술관의 얼굴> 일시 2017.2.16~2017.4.16 장소 경기도미술관		<일동> 어깨동무적십자봉사회 장수사진촬영 일시 3.22~23일 장소 관내 경로당				<제4회 레인보우콘서트> 일시 2017-03-25(토) 시간 오후 3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단원김홍도의거리풍정 일시 2016.12.6~ 장소 단원미술관 2관			28	30	31	
				클래식 <빈 필 앙상블 내한공연> 일시 2017-03-30(목) 시간 오후 8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봄을 수놓다 일시 2017-03-30~5-28 장소 단원미술관	



안산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상록구 수암동 안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제98회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안산시의회 의원들, 제98주년 삼일절 기념식 참석 수암동 안산초등학교 방문, 3.1운동 뜻 기려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 의원들이 3월 1일 상록구 수암동 안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제98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 일제에 항거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이민근 의장과 정승헌 부의장, 유화 기획행정위원장,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등 의원 일행과 안산시장, 광복회 회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의원들은 경건한 자세로 3.1운동 경과보고와 독립선언문 낭독,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의 기념식 의전에 참여했다. 이어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식후 공연 '그날의 함성! 안산의 외침' 연극을 관람한 뒤 시민들과 함께 수암동 '3.1운동 기

념비'까지 걸으며 98년 전 독립을 위해 만세 운동을 벌였던 선조들의 뜻을 기렸다.

이민근 의장은 "안산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만세 운동이 펼쳐진 수암동에서 시민들과 함께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였다."면서 "당시 압제에 항거한 뜨거운 나라사랑 정신을 거울삼아 지역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자"고 당부했다.

한편, 상록구 수암동은 과거 일제 강점기 면사무소와 경찰주재소, 보통학교 등이 집중돼 있던 곳으로 1919년 3월 30일 당시 인근 18개리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해 안산 최대 규모의 만세 운동을 전개했던 곳이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복지 간담회 개최, 의왕 레일파크 벤치마킹... '분주'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홍순목, 이하 문복위)가 최근 간담회와 현장 활동을 잇달아 실시하는 등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복위 소속 위원들은 2월 21일 의왕시 왕송저수지를 방문, 이 일대에 조성된 '의왕레일파크'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안산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았다.

의왕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을 통해 왕송호수 주변 4.3km 구간에 레일바이크를 탈수 있는 궤도 및 운영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해 생활권이 단절된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이 일대를 관광 명소로 재탄생 시켰다. 의왕레일파크는 2016년 4월 개장 이후 20만 명 이상의 유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문복위 위원들은 사업을 주관한 의왕시 공원산림과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호수열차 등을 직접 타보며 체험 기회를 가졌다. 실례 파악을 마친 위원들은 갈대습지공원과 대부도 등 뛰어난 관광 자원을 갖춘 안산에 레일바이크 시설을 도입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 주목하며 시 소관 부서에 긍정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문복위원장실에서 지역 5개 종합사회복지관장과 시 문화복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센터 건립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복지관 분소 역할을 하는 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안산시도 복지센터 확대를 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도시정비기금을 이용해 장소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기로 했다. 회의에



2월 21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왕레일파크를 방문해 의왕시 관계자로부터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서는 이 외에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방식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여건 개선 등이 의제로 다뤄지기도 했다.

홍순목 문복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와 관광 분야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상임위 위원들과 협력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칼럼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도시가 필요하다.

최근 도시 경쟁력을 위한 공공디자인과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라는 단어가 자주 화두에 오른다. 고대로 올라가면 아이덴티티는 국가와 도시에서 시작된 개념이라고 한다.

아이덴티티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동일성(Identity with), 개별성(Identity of)이라는 2가지가 나온다. 특히, 개별성은 특이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차별성과 함께 무엇인가 튀어나다는 우월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쉽게 말해 동일성은 '어떤 도시는 바로 그 도시답다'라는 의미이며, 개별성은 '어떤 도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고 더 낫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시다움으로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역사와 문화일 것이다. 타 도시와의 차별성 즉,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재생일 것이다.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파리의 경우 아름답고 근사한 궁전과 건물, 거리가 이미 17~19세기에 만들어졌고, 그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무언가를 통째로 허물고 바꾸는 작업이 거의 없다. "파리에서는 크레인을 볼 수 없다"란 말이 있을 정도다. 또한 "파리의 도시 디자인은 루이 14세 시절에 완성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도 한다. 이는 도시 어디에서든 크고 작은 공사현장을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상반되는 모습이다.

파리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규칙이 있다. 상젤리제 같은 역사적 거리에는 빨간색을 쓰지 못한다.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다. 그래서 상젤리제에 있는 맥도널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흰색 간판을 달고 있다. 또 23층 높이의 건물에는 큰 간판을 달지 못하며, 여기면 벌금을 내기도 한다. '파리 시내에 있는 건축물은 노트르담 대성당보다 높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제한도 지켜지고 있다. 아주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작은 문화까지도 고려하면서 자부심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도시나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안산은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깊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다. 하지만 안산의 경쟁력은 도시가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 안산이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통해 시민의 마음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정체성을 끌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 스스로 지켜나가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안산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최유나_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이학박사)

독자기고

이웃도 돌아보며 살자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내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곤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곤 한다. 몇 년 전쯤 우연히 인구조사에 참여한 적 있었다. 활동 중 아름답기도 하고, 가슴이 저미는 많은 사연들을 접했다. 그게 내게도 큰 인생 공부가 되었다. 필리핀에서 시집은 어느 새댁은 마치 '심청이'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딱 두 달만 더 다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심장판막증에 걸린 아버지 병원비를 보태느라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꽃다운 열아홉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을 왔단다. 첫 신혼살림을 차린 대부도 선감동 쪽에서, 처음에는 문화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언어도 안 통해 "무진장 힘이 들었다."며,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촉촉한 물기가 고였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아기가 체중미달이래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잘 커서 튼튼해요. 다행이에요."라며 더듬더듬 말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잘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대부북동에 갔던 어느 날. 어느 집 대문 앞에서 "계세요?"라고 여러 번 기척을 했는데 한참 만에 한 할머니가 나오셨다. 인구조사 하러 왔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사람 만나 반갑다."며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이불 보따리 풀어 헤치듯 줄줄이 풀어 놓으셨다. "지금도 사는 것이 넉넉하지 못해 어렵게 생활한다."며 "김치 맛 좀 보게 해 달라"고 하셨다. 부녀회장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어려운 이웃으로 추천을 해서 할머니에게 김치를 드릴 수가 있었다. 아주 하찮은 일이었지만 참 큰 보람을 느꼈다. 또 대부남동의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몇 년 동안이나 아들이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었다. 드물긴 해도 아직은 우리 효도문화가 살아 있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찢히고 뿌듯했다.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일은 내게 큰 가르침과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 좋은 경험이었다. 인구조사 때 보고 느낀 경험을 아이들에게 해 주었더니 그 자체가 아이들 가정교육에 큰 자산이 되었다. 고잔동에 친정어머니가 살고 계신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라면과 쌀이라도 사 들고 친정에 가야겠다. 엄마와 함께 고잔동 푸드뱅크를 방문해 식료품이라도 좀 기탁하고 올 계획이다. 작은 물품이지만 필요하신 분들에게 소중한 먹거리가 되길 희망하면서...

강명순(단원구 대부항금로)



기자수첩

새로운 시작, 3월

(부제 :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새해 두 달이 훌쩍 지났다. 그리고 3월, 봄이 당도했다. 새로움을 안고 있는 봄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하다.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의 바람과 무언가 새로움에 도전하는 많은 이들의 바람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 파도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 어디 한두 번이라
그런 날은 조용히 닦을 내리고 / 오늘 일을 잠시라도 /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 파도치는 날 바람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 낮게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 그대 앞에 봄이 있다(김중해) -

추운 겨울을 다 지낸 그대들이여, 이제 꽃 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지금까지 낮게 낮게 밀물져 있던 그대에게 봄 햇살이 환하게 비취는 것이다. 긴 겨울 새 생명을 담고 기다려온 나뭇가지 끝에서 희망을 본다. 본지 2월 캠페인이 '금연'이었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을 몇 번 겪고, 또다시 작심을 하더라도 새로운 첫날은 반드시 필요하다. 평생학습관에 등록한 첫 날, 동(洞)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시작한 첫 날, 건강을 위해 운동을 뒀던 첫 날이 바로 당신의 '1월 1일'이다.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다시 시작이다.

이선희 명예기자_jamyou70@hanmail.net



안산 단원경찰서 선부3동 파출소

안전한 우리 동네를 위하여 함께하는 사람들



안산 단원경찰서 선부3동파출소(소장 이창기 경감)는 학교와 공원, 주택가 사이에 선부3동 주민센터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파출소 입구에 들어서자 '자전거 절도 예방 차대번호 등록 관리제'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도난방지 스티커 부착 및 차대번호 관리카드를 작성해 도난을 예방하고 도난을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소유주를 파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시작해 2년째 계속하는 활동으로 이웃 주민들도 찾아와 문의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

파출소 대원들이 함께 가꾼 작은 텃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수확하면 주민들과 나누며 기쁨을 찾는다."는 이창기 소장의 눈가에는 인자함이 묻어났다.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지역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선부3동 파출소대원들은 혼란한 국내 여건 속에서도 4대 민생안전(여성, 서민, 동네, 교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치안활동에 주력하는 있었다.

조만호 경위(4팀장)는 "어느 곳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건, 사고는 비슷하게 발생한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이해와 타협보다는 처벌과 보상으로,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조금만 더 서로에게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장님을 필두로 우리 대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선부3동 파출소 대원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경기119소방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여러 차례에 걸쳐 헬기를 요청했음에도 흔쾌히 수락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주야간 교대근무에도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부3동 파출소 대원들. 높게 느껴지는 관공서의 담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었다.

김 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사진 _ 김진국 기자



(사)청소년가치있는누림

학교 연계 복지 네트워크로 바른 성장 돕는다



(사)청소년가치있는누림(이하 누림)은 지난 2월 23일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안산 지역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학교복지네트워크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누림은 2009년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야학봉사를 시작으로 2013년 경기도 비영리단체 인가를 받고 경기도교육청 단기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으로, 꾸준히 학교복지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며 청소년·청년복지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성안중학교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사업을 추진, 2017년 2월 현재 16개 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학교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복지사 또는 위클래스(Wee Class) 상담교사 한 명이 전교생을 관리하는 열악한 환경

을 보완하고자 관련 자원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복지 교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학교복지 증진의 훌륭한 복지모델로 평가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공동모금회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50여 학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위기아동의 심리검사와 상담을 지원하는 '학교중심 위기아동 심리정서 지원사업', 지역청년과 저소득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중심 위기아동지원 멘토링 지원사업',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기위탁교육사업' 등 구체적인 진행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위기아동 정서지원 사업은 안산·시흥 20개 학교 50명 학생에게 개인별 전문심리검사, 개인예술심리치료(미술, 음악, 놀이, 독서 등), 집단심리치료(대인관계증진프로그램), 부모교육(심리정서지원방법, 의사소통법)을 진행하며, 멘토링 지원사업은 학교중심형 위기아동지원망을 형성해 제도권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대학생봉사단 15명이 학교 부적응 아동·청소년 20여 명에게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윤성원 대표는 "학교, 복지기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지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확대해 기존 문제해결 중심의 청소년지원망에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예방중심의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사)청소년가치있는누림(031-402-4145)
신선영 명예기자(woghkah@hanmail.net)

3월 캠페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안산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해야”

잔반 줄이기 캠페인,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집중’



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수 및 거주형태별로 구분해 평가한 후 수거용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토록 한 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눈높이 교육과 함께 홍보도 강화한다. 유치원이나 초·중·고 및 각 동별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동영상 상영, 클린투어 운영, 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감량 운동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도 실시한다. 지역 내 등록된 약 8천여 개의 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 시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며, 홍보안내문도 배포해 붙이도록 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시민 홍보에 집중한다. 안산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게시하고 지역 내 전광판에도 홍보영상을 표출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리플렛 및 냉장고 속 식재료 메모판도 제작·배부한다.

연간 2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산시가 적극 나섰다. 안산시는 ‘처리’보다 ‘발생 억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으로, 이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에 맞춰, 지역 내 관공서나 학교, 기업체, 영업장 및 각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감량을 추진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역 내 학교나 관공서,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를 운영 중인 800여개를 대상으로 잔반 저울을 빌려주는 등 참여를 유도하며, 기존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리플렛도 제작·배부한다. 아파트나 연립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경진대회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음

2017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 기 간 2017년 3월 25일(토) 오전 10:00
- 장 소 문화광장
- 대 상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내 용 재활용 가능한 물품 상호교환 및 판매
- 매매교환, 체험행사, 특별한 장터운영, 공연행사
※ 중고 재활용물품 한정(의류, 신발, 장난감, 도서, 가전 등)
- 문 의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6)
- 방 법 신분증 지참, 당일 현장에서 신청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실시

전년대비 1천 톤 이상 감소... “환경도 지키고 보상도 받고”



안산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지역 내 공동주택 170개소를 대상으로 ‘전년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폐건전지 수집량’의 항목을

평가하여 최종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본오1차아파트, 창동1차연립, 황제아파트가 경진대회 우수 현판을 배부 받았고, 이를 포함한 총 27개소의 우수단지는 1,000만 원 상당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상으로 지급받았다.

선정된 우수단지는 그린빌주공8단지아파트, 고향마을아파트, 범양연립, 그린빌주공13단지아파트, 사동월드아파트, 은하연립 등이 있다. 총 98,675세대가 8개월 동안 참여한 경진대회 실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5년 26,790톤에서 2016년 25,783톤으로 줄었다. 전년대비 1,007톤을 줄인 것으로, 3.8%의 감량률을 기록했다.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본오1차아파트의 입주자회의 모선희(본오동, 66세) 대표는 “음식물쓰레기 국물을 꼭꼭 짜서 버리거나, 꼬막 껍데기 같이 분리 배출해야 하는 것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처리했어요. 관리사무소의 방송이나 교육, 경비 근로자들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노력해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도 지키고 포상도 받게 돼서 기쁘네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라고 전했다.

◇ 문의 : 안산시자원순환과(031-481-3538)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Food Waste

음식을 쓰레기 잘 먹고 잘 버리자!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용기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작은 실천이 우리 환경을 지킨다는 사실과 잘 먹는 것만큼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03 쓰레기 잘 버리기 캠페인